

무안 “절대 반대”... 함평 “황당하다”... 광주시 “난처”

“무안공항 침체, 무안 탓 돌려” 군의원 삭발식 등 강력 반발 함평 “유치 들러리만 서나” 광주 “먼저 비전 제시 불가능”

김영록 전남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발언에 이전후보지로 거론되는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전남도의 입장 변화로 이전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지만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무안군의회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발언에 “지역민을 우롱한 처사”라며 삭발식을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무안군의회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반대해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도지사의 사과와 군공항 이전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무안 MRO항공특화산업이 빠진 이유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목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호성 무안군의회 특위위원장과 임동현 무안군의회 부의장은 삭발식을 가졌다.

무안군민들 역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김 지사의 발언을 질타했다.

정종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위원장은 “반대위는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으

나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행정 태도는 무안군민들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광주전투비행장을 22개 시·군 중 유치하고 싶은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공모제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함평에서는 29일 지역 민간사회단체 주최로 다섯번째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마련된다. 함평은 국방부가 지목한 유력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구가 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광주 군공항 유치를 고려해오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도 지난 16일 설명회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전망이 관측되기도 했다.

함평은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신청서 제출을 위해 오는 5-6월 군민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

경 속에서 김 지사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발언’은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나성주 함평군공항유치위원회 임시공동위원장은 “함평에서 유치설명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 뜬금없이 그 이유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김 지사도 수수방관하다가 함평에서 군공항 이전을 풀어보려고 모색 해보자는 와중에 군공항 무안 이전 발언이 나와서 황당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역시 김 지사의 발언으로 다소 난처한 분위기다. 군공항 이전후보지는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지만, 주민 설득 등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어느정도 도달한 함평과 주민반대 속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무안 사이에서 득실을 계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광주시는 내다봤다.

특히 김 지사가 언급한 ‘비전보따리’는 법적절차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하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이전 후보지에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광주시가 아닌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끌어 내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말해 먼저 도지사의 협조에 따라 무안과 협의를 거치거나, 도지사가 무안을 대변해 광주시에 비전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상등이법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기반시설 설치·개발사업 △도시 개발·정비·재생 지원사업 △스마트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공항 건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언급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공항 특별법의 대전제하에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시행령으로 적용된다”면서 “지자체와 협의없이 광주가 먼저 비전을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광주시, 지산IC 특정감사 내달 착수

감사위, 설계변경 등 적정성 여부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지산IC 도로개설사업 전반에 관한 특정감사에 나선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제2순환도로 지산IC 도로개설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 13일 열린 지산IC 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차량진출 실패율 최대 8배, 사고발생률 최대 14배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산IC 진출로 개설과 실시설계 변경, 예산집행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이다.

특히 주민 민원을 이유로 애초 우측 진출 방식에서 운전자들에게 낯선 좌측 진출 방식으로 변경된 의사 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문제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산IC는 77억원의 사업비(설계비 6억 여원 포함)를 들여 양방향 총연장 0.67km 폭 6.5m의 진출로로 신설됐으며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가,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에서 맡았다.

두암타운 등 인근 통행차량을 분산시켜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시민 승터인 무등산과 지산유원지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형적 도로구조 탓에 혼잡과 역주행이나 급정거,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늘 염려돼왔다.

당초 우측방향으로 계획했지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소음 피해와 분진,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주민과 전문가·경찰청 등과의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좌측 방향 진출로로 최종 결정됐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밀반찬 나눔... 김치 담그기

광주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28일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밀반찬 나눔행사에서 관내 소년소녀가정에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이 포장한 배추김치, 진미채, 김 등 밀반찬 3종 세트는 소년소녀가정 50세대에 전달된다.

김영배 기자

김영록 ‘무안공항 연계’...

1면서 계속 또한 군공항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함평은 “우리가 들러리냐”는 분위기다.

함평군공항유치위원회는 “전남도가 지금까지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있다가 함평

등이 군공항을 유치해보겠다고 하니, 무안 이전을 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매우 당황스럽다”며 “김영록 지사는 지역 갈등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중립적 태도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함평의 적극적인 유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왔던 광주시 역시 김 지사의 발언에 다소 곤란해하는 모습이다.

주민설득이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서 중요한 과정인 만큼 주민반대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측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 선정은 국방부가 한다”면서 “지자체 간 자발적인 경쟁과 마지못한 경쟁은 차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100% 친환경제품 (비노출)

민간업체 부유층과 차원이 다른 기술수용성제품과 차원이 다른 물방울 공음기 1:1이유입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발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한정량 생략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